

[제2016-91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일시	2016.12.2 (금)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새롭게> 공연개최



-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새롭게 (Restoring Tradition)
- ▶ 일시 : 2016. 12. 16(금) 19:30
-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LA한국전통타악그룹 "놀이"(디렉터 임주영)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그 열여섯번째 무대로 LA한국전통타악그룹 "놀이"(디렉터 임주영)와 함께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옛것을 새롭게> (Restoring Tradition) 공연을 12.16(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관객들의 무사안녕과 복을 빌어주는 열림굿과 채상놀음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타악의 부드러운 선율과 다이내믹한 리듬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 굿거리변주, 한국의 영남지역의 가락들을 모아 만든 영남농악 가락, 한국의 가장 대중적인 민속춤 중 하나인 최종실류 소고춤을 무용가 Jeannie Kim이 특별출연하여 선보이며, 호남 우도가락과 짝쇠놀이, 한국의 전통타악을 재구성한 모듬북 사물놀이 아리랑,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농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인 열두발 상모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가주에 위치한 한국의 전통 타악그룹 “놀이 (NORI)”는 이곳 현지에 거주하는 유지선과 국악전공자, 그리고 사물놀이를 사랑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한인2세를 위한 뿌리교육의 일환으로 사물놀이를 오랫동안 지도해 왔을뿐 아니라 미국 주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국 놀이문화 소개 및 사물놀이, 선반 풍물강습 등을 하고 있다. 타인종 커뮤니티/단체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함께 즐길수 있는 우리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이번 무대는 한국전통 사물놀이와 열두발 상모춤 등 모든 작품을 한글과 영어해설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한인 2세들과 타인종 친구, 이웃들과 함께 오셔서 신명나는 울림 한마당으로 온가족이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새롭게> 프로그램 설명자료

1. 열림굿과 채상놀이

본공연에 앞서 짧은 연주로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관객들의 무사안녕과 복을 빌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채상놀음으로 관객에 흥을 더한다.

출연자: All Nori Members

2. 사설

LA 전통타악그룹 “놀이” 소개와 간단한 작품소개말 (임주영, 뮤직디렉터)

3. 굿거리변주

굿거리장단의 여러가지 변주를 모아 빠르게부터 느리게, 그리고 단순한 가락부터 복잡한 변주가락까지를 종합한 연주작품이다. 한국 전통타악의 부드러운 선율과 다이내믹한 리듬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출연자: All Nori Members

4. 영남농악 가락

영남농악가락은 사물놀이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한국의 영남지역의 가락들을 모아 만든 것이다. 리듬 중에는 군사훈련에 사용된 반복적이고 강한 리듬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다. 공연 중간의 별달거리 부분에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아래와 같은 시구도 나온다

하늘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쳐주네.

출연자: 팽과리 (여준영), 장구 (임주영), 북 (이경아), 징 (김은주)

5. 최종실류

소고춤은 한국의 가장 대중적인 민속춤 중에 하나로, 지름이 약 15인치 정도 되는 소고북을 손으로 들고 치면서 추는 춤이다. 오늘은 특별게스트 Jeannie Kim 의 최종실류 소고춤을 감상하실수 있다.

출연자: Jeannie Kim

6. 호남 우도가락과 짝쇠놀이

이 곡은 전라 우도풍물굿 가락을 다시 짠 것으로 호남 우도굿가락은 호남 좌도굿가락에 비해 장구가락이 발달했으며 판굿에서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변주가락을 구사한다.

두사람의 팽과리 연주자가 합주하는 짝쇠놀이 또한 가장 역동성이 들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출연자: 팽과리 (임주영), 장구 (서유희, 김성이, 장은진, 김기현), 북 (이경아, 김은주, 김재희), 징과 짝쇠 (여준영)

7. 모듬북 사물놀이 아리랑

모듬북 사물놀이 아리랑 작품은 한국의 전통 타악을 재구성한 사물놀이를 현대식으로 접목하여 만든 장르입니다. 전통 사물놀이 리듬을 사용한 여러개의 북 장단이 주를 이루며, 팽과리, 태평소, 징과 합연하며, 널리 알려진 전통민요 ‘아리랑’을 연주하는내용으로 되어 있다. 오늘은 우리의 특별 초대손님인 한국전통문화 보급에 공헌하고 계신 중, 장년 타악그룹 ‘문화사랑 장구학당’ 의 모듬북 공연을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연자: 문화사랑 장구학당

8. 열두발 상모춤

상모춤은 한국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춤 중에 하나이다. 페스티벌이나 축제의 현장에서 늘 볼 수있는 긴 리본이 달린 헬멧모양의 병거지를 쓰고 추는 춤이 바로 그것이다. 상모의 긴 리본을 바람에 빙빙 돌리면서 치배들 주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상모춤은 농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며, 흥의 절정에 이르러 보여지게 된다. 목과 굴신을 통한 반동을 사용하여 계속 리본을 돌리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상모를 돌리면서 점프를 하거나 여러가지 다른 리본 모양을 보여주기도 한다.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축제의 마무리 장이 될 것이다.

출연자: Nori Members, 상모춤 (이경아)

<LA한국전통타악그룹 "놀이">



/끝/